

분과별 논문발표 스케치

경제분과의 경우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우성, 김보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경제적 성장과 불경건에 관한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성장이면서 확장되어 온 불경건의 의미를 점검하고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로 성적 타락과 유흥 산업, 도박 산업을 주요 불경건의 행위로 보고 경제 성장과 이들 행위간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는 토론이 있었다.

유기선(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의 "공동체 기업을 통한 지역개발을 위한 탐색적 사례연구"는 기존의 지역 개발 이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고 성경적 가치관이 반영된 공동체 기업을 통한 지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몽골의 바가노르의 지역에 적용하여 탐구한 논문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동역자로서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피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구현하는 공동체 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었다.

조성표(경북대학교 경영학), 남숙진(대구도시가스 재무관리팀), 전광학(대구전략산업기획단 재무팀장)이 공동 연구하고, 전광학(경북대 경영학 박사과정)이 발표한 "불황기의 연구개발지출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불황기 동안에 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킨 기업과 감소시킨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실증 분석하여 흥미로웠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미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임을 보여준 논문이었다.

서영준(한국누가회), 김현주(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배성권(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이 공동 연구한 "한국 기독교병원의 병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나아갈 방향"은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년이 지난 현재,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기독교병원은 의료계를 둘러싼 다양한 경영 환경변화와 병원 내부적인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구 테마로서 의미가 큰 논문으로 평가되었다.

교육분과 논문발표

이번 학술대회 교육분과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적 아동죽음교육", "Douglas Blomberg의 통합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초등학교 과학교과 생명영역 교재 개발", "기독교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사회수업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그리고 "교회학교의 교사자질 연구 분석 및 평가" 등이 발표되었다.

유아와 아동(초등학교 연령), 중고등,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이 다양한 논문들이었으며 주제도 죽음교육, 생물, 사회, 교회학교 교사자질에 관한 논문들로서 매우 다양하였다. 논문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전공분야나 대상연령이 다양하여 혹시 관심 없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속에서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논문발표를 들으면서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의 실제성과 열정에, 그리고 그 내용의 다양함에 오히려 매료되어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들 대부분이 현장에서 교사를 하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교과목을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천하였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 더 좋은 점은 그 결과가 매우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기독교교육의 미래를 위해 희망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짧아 발표자들이 연구한 것을 좀 더 깊이 알 수 없었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 학술대회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간 배정을 한다면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교육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유익하고 귀한 정보와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의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원 분과 논문발표

대학원분과에서는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교육분과의 발표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 이돈실(고신대학교 박사과정)이 발표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공교육의 교육과정 변천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밝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평을 하고, 국공립학교와 기독교계 사립학교 및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기독교사로서 공교육 안에서와 대안교육을 통하여 교육 목적 및 방향을 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에서 진행되었다.

한국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관에 관한 연구는 무교와 불교, 유교(도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과,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대별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세계관, 신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후기 한국사회의 세계관, 그리고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와 교육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연구한 의미가 큰 논문이었다.

기독교 영성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정 윤(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이 발표한 이 연구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석,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기독교 영성연구의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여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보다 발전적인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교육 연구의 질적 내실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연구 내용으로는 신학적 접근의 연구가 기독교 교육으로서의 연구보다 많으며, 교육대상은 성인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 졌고,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HISTORY AND BEYOND: THE ROLE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 CULTURAL ENGAGEMENT

Benson K. Kamary (충신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역사속에 있는 정치 및 사회, 경제적 요인들에 기독교적 가치가 영향을 미친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 문화의 특성과 반성에 대한 의미 큰 비판과 제안을 한 논문이었으며 청중의 토론이 뜨거웠다.

